서남대 편입에 뿔난 재학생 달래기

전북대 "의대학생 수용, 거점 국립대로서 공적 책무"
강의·실험실 보완 등 학습권 보호위해 15억원 투입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 학생 특별 편입학은 추후 지역 내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내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라는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의실·실험실 보완 등을 겨울 방학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 학기 개강 이전 15억원을 투입해 강의실 확충과 리모델링, 임상실습센터 확충,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 신설, 200석 이상의 도서관 열람실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입생 기숙사 수용과 관련해서도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2년 후인 2020년까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서남대 학생 편입학 수용이 거점 국립대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의대와 대학발전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 배정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의대생에 대한 편입학 수용은 현재 한시적 정원 증원이긴 하지만 추후 지역 내에 있는 대학으로 정원을 재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도 나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정원 증원을 이뤄내 의대와 대학 전체의 발전, 나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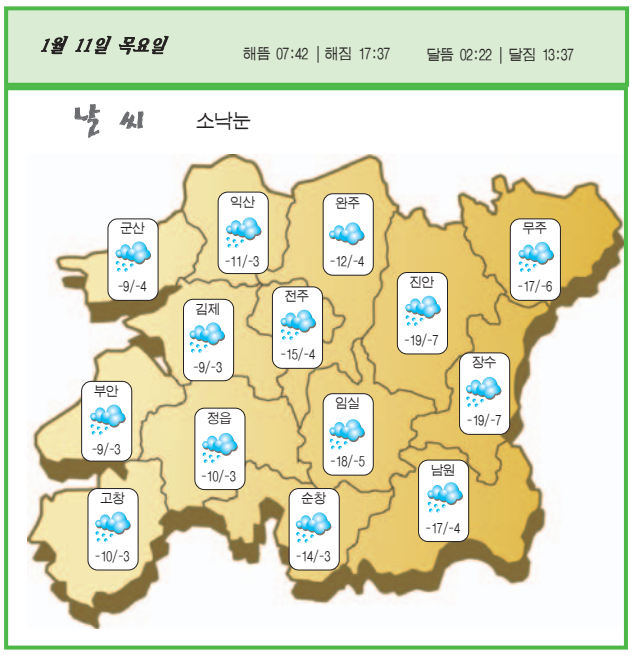
또한 전북대학교는 서남대학교 편입학 문제에 대한 결정이 학교 측의 일방적 통보라는 의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편입학 수용을 결정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 교수와 학부모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학부모들은 의대 교수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북대 의대는 1월 2일 교수 총회를 열어 서남대 편입학을 수용키로 결정했고, 당일 서남대 특별 편입학 전형을 확정 공고하고 10일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았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교육청 산하 운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도교육행정 운전직연합회'가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려운 학생에 희망장학금 전달

도교육청 운전직공무원 사랑나눔 실천 감동선사

전북도교육청 산하 운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도교육행정 운전직 연합회'(회장 김상수, 삼기초등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키우는 많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모아 최근 희망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전북도교육행정 운전직 연합회의 장학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려운 학생 45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도내 14개시·군별로 1명씩 총 14명의 장학생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연합회 김상수 회장은 "우리가 직접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져 학생들이 행복한 새해,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의 희망 장학금 전달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올해부터 명퇴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공무원 선택권 보장 도모 내달 1일~12일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2018년도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전북교육청은 공무원의 명예퇴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명예퇴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경력직공무원으로「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사건으로 수사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1분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와 명예퇴직 요건 심사서 등을 갖춰 지역 교육지원청과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1분기 명예퇴직일은 3월 31일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특색교육과정 성과내려면?

교사협력문화 가장 중요

초등 교사들은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선 교사들의 협력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8학급 규모의 학교일수록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은 걸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을석) 교원 연구동아리 S-TONES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규모에 따른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S-TONES 연구동아리(연구진 이수경 옥봉초 교사 외 3명)는 초등학교 규모에 따른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등교원 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0%(479명)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아니오는 30%(201명)에 머물렀다. 이와함께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60%이상이 6학급~18학급 규모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적절한 규모가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잇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어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요인을 우선순위에 따라 물은 결과, 교사들의 협력문화를 꼽은 응답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수경 옥봉초 교사는 "이번 연구결과,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선 교사 간 협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예산지원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교대 정시 마감… 경쟁률 2.16대 1

292명 모집 · 632명 지원
1단계 합격자 18일 발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경희)가 2018학년도 정시모집을 경쟁률 2.16:1(292명 모집, 632명 지원)로 마감했다.

전주교대는 정시 나군 모집을 통해 29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지원결과 일반학생전형(264명)은 594명이 지원해 2.25: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기회균형선발제(4명) 2.25:1, 농·어촌학생(11명) 1.82:1, 국가보훈대상자(5명) 1.2:1, 특수교육대상자(8명) 0.25:1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정시모집 1단계 전형합격자는 18일 오후 1시에 발표하며, 1단계 전형 합격자는 25일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2월 1일 최종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